

서울시, 노후 경유차 3만대 줄여 초미세먼지 58t 줄였다

질소산화물 702.45t 저감효과
폐차 보조금 최대 770만원 지원

서울시가 올해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로 초미세먼지(PM-2.5) 57.64t을 줄였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월~10월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2만1986대를 조기폐차하고, 7372대에 매년저감장치(DPF)를 부착했다.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는 77대, 건설기계 522대 등 총 2만9957대를 저공해 조치했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57.64t,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는 702.45t으로 나타났다.

특히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소는 노후 경유차의 경우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가 효과적

〈최근 운행차 저공해추진 실적〉

(단위: 대)

구분	계	DPF 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 폐차	PM-NOx	건설기계 엔진교체
		자동차	건설기계				
계	87,566	20,352	1,339	162	64,299	425	989
'15년	13,039	4,412	-	73	8,399	60	95
'16년	15,819	4,714	159	54	10,446	130	316
'17년	28,751	3,876	972	13	23,468	158	264
'18.10월	29,957	7,350	208	22	21,986	77	314

※ '17년 이후 사업이 중단된 삼원축매장지는 실적에서 제외

이었다.

차량 1대당 질소산화물 저감량은 대형차에 장착하는 동시저감장치와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각각 500.26kg/년·대, 288.73kg/년·대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8만7566대를 저공해 조치했다. 조기폐차 6만4299대, 저감장치(DPF, LPG엔진개조) 2만1853대, 동시저감장치는 1414대에 설치했다.

시는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 추진으

로 2011년도 대비 2015년도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553t에서 1314t으로 4년간 239t 줄였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농도 역시 줄었다.

2003년 시범사업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 2005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미세먼지는 58μg/㎥에서 44μg/㎥로, 질소산화물은 34ppb(2005년)에서 30ppb(2017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부의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을

따라,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이전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 운행을 제한했다. 운행제한 위반 차량 1189대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2002년 6월 이전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같은해 7월 이후 차량 중 영업용 화물차와 생계형 차량은 장거리 운행, 차량의 내구성(의무이행기간 2년)을 감안해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에만 저감장치를 부착한다.

2005년 이전 경유차량 19만3000대(총중량 2.5t 이상 8만6000대, 2.5t 미만 10만7000대) 중 2.5t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매년 저감장치 부착으로 2020년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와 매년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는 2.5t 미만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440만원~7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은 운행경유차가 326만원~927만원, 건설기계는 666만원~934만원이다.

질소산화물 저감 보조금은 PM-NOx가 1305만원~1462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은 1002만원~2526만원 지원된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서울지역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며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북악스카이웨이 1교 보수완료... 23일 재개통

통과하중 총중량 43.2t으로 높여
교량·보도 폭 확장... '1등급' 개선

서울시가 북악스카이웨이 1교의 재시공을 마치고 23일 오전 9시 재개통한다.

1970년 4월 15일 폭 8.3m, 연장 60m로 준공된 북악스카이웨이 1교는 2014년 5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평가돼 긴급보수공사가 실시됐다.

이후 서울시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교량 전체를 개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북악스카이웨이 1교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임시가교를 설치해 통행을 전환시켰다.



재시공을 마치고 23일 재개통을 앞둔 북악스카이웨이 1교의 조감도. /서울시

개축공사를 마친 북악스카이웨이 1교는 2등급 교량에서 통과하중을 총중량 43.2t으로 높여 1등급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했다. 교량과 보도도 확장해 23일 재개통한다.

기존 북악스카이웨이 1교는 내하력 부

족과 내구성 저하로 총중량 21t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했다. 시는 이번 개축공사로 43.2t으로 총중량을 높였다.

교량 폭도 8.3m→9.8m, 보도 폭 1.0m→1.5m으로 확장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그동안 임시가교로 우회하는 등 통행에 협조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의 대표적 드라이브코스인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후시설물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로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600억 걸린 '정책공모 제안' 30건 접수

경기도, 총 10개 사업 본 심사 진출

경기도가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하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First' 공모결과 30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고 100억 원에서 60억 원까지 지원되는 대형사업에 16건, 최고 60억 원에서 45억 원이 주어지는 일반사업에 14건 등 총 3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First'는 민선 6기 경기도가 추진했던 'Next경기 창조오디션'을 잇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제안한 우수 정책에 대해 최대 100억 원까지, 모두 10개 정책에 600억 원 규모의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제안사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와 부서에서 추천한 1,000여명의 전문가들로 평가위원

을 구성한 후 이 가운데 무작위로 40명을 심사위원단으로 선정하며, 이들은 각 20명씩으로 나뉘어 현장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맡게 된다.

도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심사위원들이 직접 예정 사업부지를 둘러보고 사업계획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질문답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대규모사업 상위 3개와 일반사업 상위 7개는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인 본 심사에 진출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책공모 2018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군이 재정 부담 없이 대규모 사업 추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선 7기에도 정책공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군의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고 지역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대공원 동물사 새단장

조류사·제3아프리카관 리모델링
동물복지 실현, 관람객 몰입도 커져

서울대공원이 동물의 습성과 생태를 반영한 동물사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했다.

재 개장한 동물사는 조류사와 제3아프리카관이다. 조류사는 1년 6개월, 제3아프리카관은 1년간의 공사를 거쳐 11월 재개장했다. 야행관도 7월 재개장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의 습성과 생태를 파악해 동물사를 새로 지었다고 20일 밝혔다. 동물 복지를 실현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더욱 자연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관람객 또한 몰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공원은 지난 2016년 12월 황새 2수의 폐사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을 막고 멸종위기 조류 보호를 위해 조류사를 재설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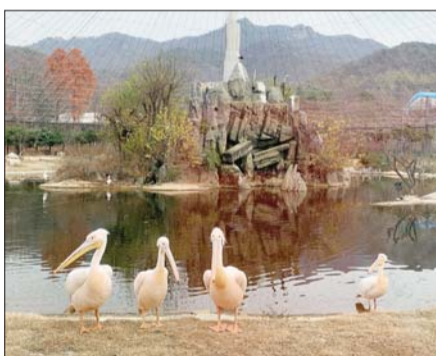
우선 얇은 물가에서 먹이를 찾는 섭금류를 위해, 서울대공원은 '황새마을' 동물사의 연못 크기를 다양화하고 휴식을 위한 나무를 심었다. 기존 황새마을보다 야외 면적을 넓히고 지붕도 높였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새를 위한 격리실도 갖추었다. 황새 마을 2층 관람창에는 점들을 표시해, 새가 날다가 부딪히지 않도록 했다.

격리방사장에는 지붕 차폐 장치를 마



서울대공원 사자사(왼쪽)와 큰물새장.



/서울대공원

련해, 외부 철새의 분변이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야외방사장의 경우, 동물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내부 관람로를 차단하고 별도로 3개의 관람대를 조성했다.

제3아프리카관의 사바나길은 초원의 서식환경이 재현됐다. 사자 방사장은 여러마리의 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온돌조형물 5개가 설치됐다. 관람창은 사자 방사장 안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도록 지어졌다고 대공원 측은 설명했다.

관람 동선이 닿지 않았던 치타와 하이애나 방사장도 근접 관람이 가능해졌다. 대공원은 국제규격 이상으로 넓은 초원 속에서 치타가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

게 됐다고 밝혔다. 물을 좋아하는 점박이 하이애나 방사장에서는 인공연못과 바위굴을 조성해 하이애나의 풍부한 생태를 엿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7월 재개장한 야행관은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야외 방사장이 들어섰다. 이 집트과일 박쥐 공간은 종유석, 석순과 석주 조형물로 동굴을 재현해 박쥐에게 쉼 공간을 제공했다. 나무타기를 잘하는 킹카주에게는 나무 조형물과 마닐라로프로 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사장을 조성해 주었다. 관람통로 또한 내부와 같이 연출하여 관람객이 동물이 사는 공간에 들어온 느낌을 살렸다고 대공원 측은 밝혔다.

/이범종 기자

전통시장 김장비용, 대형마트 보다 10% 저렴

배추 60포기 기준 13개 품목 조사
전통시장 25만원, 대형마트 28만원

올해 김장 재료 구매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0%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61곳에서 4인 가족(배추 20포기 기준) 김장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10.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2일~13일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의 협조로 서울시내 전통시장 50곳과 대형마트 10곳 등을 방문해 주요 김장 재료 13개 품목의 소매 가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5만 1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 4160원보다 12.2% 상승했다.

대형마트는 28만 203원으로 지난해 24

만 5340원보다 14.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오른 이유는 배추·대파·쪽파·미나리·반청갯 등 주요 채소류의 생산량 감소와 기상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배추는 생산 지역이 강원도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재배 면적 감소와 생육기 저온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건고추와 생강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고 작황이 좋지 않아 높은 시세를 형성했다.

반면 무는 재배면적 증가로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시세를 보였다.

수산물 중 새우젓은 근래 2~3년간 지속적인 어획량 감소로 재고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10% 이상 올랐다. 굴은 올 여름 폭염과 태풍에도 불구하고 작황은 대체로 양호해 지난해와 비슷한 시세로 거래됐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이범종 기자